



활력 넘치는 새벽시장처럼 '이젠 實利다'

시장만큼 사고 파는 자의 실리가 어김없이 일치하는 장소가 있을까. 세상은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는 데도 우리는 시장의 법칙인 '실리'란 회두를 외면해 왔다. 남은 것은 시위와 피업, 거칠고 반항적인 지역이란 이미지가 있었다. 광주일보는 2007년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를 통관할 테마를 '실리'로 잡았다. 바로 시장처럼 실리와 명분이 맞닿아지는 사회가 올해의 지향점이다. 사진은 구립 29일 새벽 목포수협 위판장의 수산물 위판 현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건 지지도 45.5%... 이명박 17.8%

광주일보·한국갤럽 '광주·전남 의식조사'

65%가 "盧대통령 국정운영 잘못"

경제적 낙후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정주(定住) 의식(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은 크게 높아져 고향 및 거주지에 대한 강한 애착을 반영했다. 새해 소망으로는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 여유를 가장 먼저 꼽았다.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선호도에서는 호남 출신인 고 건 전 총리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켰으나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높아져 '빅3'의 합계 지지율이 24%에 육박했다.

광주일보는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 한국갤럽에 의뢰,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대선 및 주민의식조사를 겸한 전화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p)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45.5%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선두를 고수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각각 17.8%와 4.6%를 기록해 2위와 3위에 올랐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4.4%로 4위, 지난해 상반기까지 2위를 지켰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4.0%를 얻는데 그쳐 5위로 추락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2.1%,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5%로 그 뒤를 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64.6%로 긍정적인 평가의 3배에 달했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실업 문제 해결'이 20.8%, '경제활성화' 13.6%, '부동산 안정' 13.3% 순이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조기 추진에 대한 지지가 배 가까이 높았다. 시·도민의 60.0%는 '가능한 빨리 개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33.9%였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반값 아파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69.6%가 '별로 없다'거나 '전혀 없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해 '많이 있다' 또는 '어느 정도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21.8%)의 3배를 초과했다.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33만 1천원으로 조사됐다.

년 4월 광주일보-(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조사 때보다 11.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27.5%가 '낙후지역'을, 26.7%는 '5·18 민주화 상징'을 꼽았고, '맛의 고장'과 '낙후한 인식'은 각각 16.4%를 차지했다. 새해 소망은 '건강'이 33.7%, '경제적 여유'가 23.8%, '승진 및 취업'이 11.7% 순이었다.

후세인 사형 집행

'사형 후폭풍' 잇단 폭탄테러

집권 중 시아파 주민을 확실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 후세인(69) 전 이라크 대통령이 구랍 30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후세인이 처형당한 뒤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 후세인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보이는 차량폭탄테러가 일어나는 등 폭력사태가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세인은 이슬람권의 가장 큰 축제인 회생제(이드 알-아드하)가 시작된 이날 오전 6시경 교수형 방식으로 처형됐다.

후세인은 교수대에서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알라'는 유일하며 무하



마드(마호메트)는 알라의 예언자다'라는 무슬림들의 신앙고백을 한 뒤 곧바로 처형됐다.

후세인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그의 지지세력인 수니파 세력의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시아파 지역인 쿠파에서 이날 차량폭탄테러가 일어나 적어도 31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쳤다. 또 후세인 처형 후 10시간 뒤인 이날 오후 4시경 바그다드 시내에서 연쇄 차량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죽고 25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신년특집 지면 안내

2007 전망-정치	3면	이젠 實利다	14~15면
시·도민 의식조사	4~5면	광주·전남 경기전망	16면
비전 광주·전남	7면	돼지의 경제학	19면
지구촌 새해 기상도	8면	신춘문예 당선작	24~25면
국립공원 40년	12면	올해 '광주체전의 해'	26면

개원인사말씀

환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동안 저희를 믿어 주시고 아끼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 한 해에 평안히 이력 장소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건뎌에 알맞게 찾아오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광주보람병원

·내과 ·외과 ·응급실 ·영상의학과 ·소아과 ·노년과 ·의치과 ·물리치료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광동 2리10번길
전화: (062)228-0600, 228-0700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주일보사 임직원 일동

우리의 대표브랜드 - 삼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07년에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해 첫날 드리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눈부신 2007년 되십시오.

SAMSUNG 삼성